

6타차 역전 드라마…이미향 “나도 얼떨떨”

LPGA 스코티시오픈 깜짝 우승

대회 4라운드 6타 뒤진 공동 6위로 시작
웹 17번홀 벙커 참사…이미향에겐 행운
총 282타…상금 2억5000만원 손에 쥐어

스코틀랜드에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처럼 역전 드라마는 예고도 없이 왔다.

이미향(24·KB금융그룹)이 선두와 6타 격차를 따라잡는 맹추격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7월 31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노스에이셔주 던도널스 링크스코스(파72·639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오픈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고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22만5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도 함께 품었다.

무서운 뒷심이였다. 이미향은 4라운드 출발까지 선두그룹에 6타 뒤져 있었다. 호주의 베테랑 캐리 웹(43)과 김세영(24·미래에셋자산운용)이 6언더파 210타로 나란히 선두를 달렸다. 크리스티 커(40·미국)가 2타 뒤진 3위로 챔피언 조에서 경기를 했다. 이미향은 이븐파 216타 공동 6위였다.

출발이 산뜻했다. 1~2번 홀 연속 버디를 했다. 4번 홀 보기는 5~7번 홀 3연속 버디로 만회했다. 전반 마지막 홀까지 버디를 잡고 선두와 격차를 지워냈다. 하지만 웹과 공동선두로 출발한 후반부에선 버디 행렬이 멈췄다.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 파4 17번 홀까지 버디 없이 파 행진이 계속됐다. 이미향이 추종거리 사이, 웹은 14번 홀에서 환상적인 집인 이글 덕분에 2타차 단독선두가 됐다. LPGA 개인통산 우승이 한 차례에 불과한 24살 골퍼는 17번홀에서 기막힌 어프로치 샷으로 우승의 희망을 이어갔다.



이미향이 7월 31일 스코틀랜드 노스 에셔 던도널스 링크스에서 열린 미 LPGA 투어 에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노스에이셔(스코틀랜드) | AP뉴시스

세컨드 샷이 그린을 넘어 가지 않아야 할 지역에 갔다. 러프에서 환상적인 플롭샷으로 언덕처럼 솟은 그린 위로 공을 띄워 버디 같은 파를 잡았다. 이미향에게는 행운의 홀이 웹에게는 대참사의 홀로 변했다. 16번 홀에서 쉬운 어프로치 샷 미스로 보기를 기록한 웹은 그 영향 탓인지 17번홀 드라이브 샷을 또 실수했다. 페어웨이에 있는 함아리 벙커로 공이 들어갔다.

벙커는 깊었다. 앞으로는 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170야드가 남은 상황에서 뒤로 공을 빼내야 했다. 200야드로 거리가 멀어졌다. 웹은 우드로 그린을 노렸으나 또 공이 벙커에 빠졌다. 이럴 때 보면 골퍼는 정말 잔인한 경이다. 흔들

린 웹이 벙커탈출 뒤 2퍼트로 홀아웃, 더블보기를 기록하자 이미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다.

이미향은 파5 18번 홀에서 2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다. 여유 있게 버디를 추가한 뒤 경기를 마쳤다. 이미향을 추격하던 웹은 연장돌입에 필요한 이글에 실패하면서 우승이 확정됐다. 클럽하우스에서 대기했던 이미향은 대회 관계자들로 부터 우승 소식을 듣고 감격에 젖었다. 2014년 11월 미즈노클래식 제패 이후 2년 8개월만의 LPGA 정상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스코틀랜드의 바람처럼 그야말로 우승은 예고 없이 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김연경 “그랑프리 준우승 했어요”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이 31일(한국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2017그랑프리 국제여자배구대회 2그룹 결승전이 끝난 뒤 준우승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짓고 있다. 비록 폴란드와의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했지만 한국은 예상을 깨고 선전하면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냈다. 사진출처 | 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

세터 이소라의 재발견 한국여자배구 큰 수확

그랑프리 준결승 독일전 역전승의 주역



이소라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체코에서 31일(한국시간) 끝난 2017그랑프리 국제여자배구대회 2그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목표했던 우승컵을 손에 넣진 못했지만, 신진세력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얻고 1일 귀국한다. 특히 결선라운드에서 반전 카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세터 이소라(30·도로공사)의 재발견은 큰 수확이다.

이소라는 V리그 소속팀 도로공사에서도 이효희(37)의 백업 세터로 뛰고 있다. 오히려 세터 본연의 임무보다 강력한 서브로 더 주목을 받았다. 2005년 V리그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프로(GS칼텍스)에 입단한 유망주였지만, 두 차례의 방향으로 인해 프로에서 5시즌만 소화한 터라 ‘잊혀진 선수’로 통했다. 2016~2017시즌에 복귀한 것도 2010~2011시즌 이후 6시즌 만이다. 그랬던 그를 홍 감독은 과감하게 대표팀에 뽑았고, 30일 독일과 준결승전에 투입해 성공을 거뒀다. 한국은 세트스코어 0-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이소라의 투입 이후 3세트를 내리 따내며 역전승을 거두고 준우승을 거뒀다.

이 경기 이후 이소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카드는 평가다. 세터 출신인 KBSN스포츠 이숙자 해설위원도 “이소라는 공격수들의 타점에 맞게 토스를 하는 부분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30일 독일과 준결승에선 김연경(상하이)과 김희진(IBK기업은행)의 타점을 살린 오픈토스로 관록미를 뽐내기도 했다. 부동의 대표팀 주전세터였던 김사니(SBS스포츠 해설위원)와 이효희가 떠난 뒤 중심을 잡아줄 세터의 필요성이 커진 터라 이소라의 활약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비행기 지연·골프백 배달사고…우승 ‘액땀’이었는데

이미향, 4R선 캐디와 의견 충돌 해프닝도

각본 없는 드라마였던 만큼 험난한 고비도 많았다. 7월 31일(한국시간) 이미향(24·KB금융그룹)의 미 LPGA 투어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오픈 정상 등극 뒤에 숨은 에피소드가 화제다.

대회 준비부터 말썽이었다. 미국에 머물던 이미향은 7월 24일 예약한 항공기를 통해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면서 예정된 연결편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했다. 결국 예정보다 늦게 스코틀랜드에 도착했다. 어쨌든 대회장

소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골프백이 문제였다. 경유지 아이슬란드에서 ‘배달사고’가 났다. 자신과 한 몸과도 같은 골프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연습라운드 첫 날 골프장 인근 상점의 클럽을 빌려 샷 감각을 조율했다. 골프백은 나중에야 도착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써왔던 익숙한 클럽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개막 직전 하루뿐이었다.

우승이 걸린 4라운드에서는 캐디와 의견 조율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다. 캐리 웹(43·호주)과 선두 자리가 바뀐 17번 홀에서였다. 강풍 속

에서 두 번째 샷을 앞둔 이미향은 거리를 두고 캐디 चे드 페인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 자신의 뜻대로 클럽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온 그린 실패. 가장 위험한 곳으로 공이 갔다. 다행히 어프로치 샷을 잘해 지옥 문턱에서 빠져 나왔지만 이때 보기를 했더라면 스코티시오픈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는 “운전할 때는 네비게이션, 골프 칠 때는 캐디. 집에서는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큰 탈이 나지 않는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역전우승을 이룬 주인공은

경기 뒤 환한 미소로 그간의 시련을 날려버렸다. 이미향은 “우승이 믿기지 않는다. 나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회장소에 강풍이 불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퍼트 여러 개를 놓쳤다. 그래서 바람을 염두에 둔 퍼팅연습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3라운드 들어 자신감을 되찾았는데 결국 그 덕을 봤다”고 우승 비결을 전했다. 이미향의 우승으로 21개 대회를 치른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국내 선수들은 11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3주 연속 우승이다. 고봉준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전국지사 및 가맹점주 100분을 모십니다.

미국 라이선스를 체결한 건강하고 맛있는 미국전통버거!!

델리아메리칸 만의 특징

- 0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 0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 0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 0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 0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 0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

49.5m²(15평형) 8,000만원

델리아메리칸에서는 상권분석에서부터 인테리어 비용, 비품, 주방용 집기, 소품, 사인물 일체

BURGER

BABEQUE PHILLY STEAK FRESH

GRILL FLAVOR FRENCH FRY DELICIOUS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